



## 짝퉁의약품(2) - 위조의약품의 현황

저자 최혁재

경희의료원 한약물연구소 부소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넘치는 짝퉁의약품의 세계

흔히 짝퉁의약품이 유통된다고 하면, 그 대책으로 강력한 단속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짝퉁의약품은 단속만으로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짝퉁의약품에 대한 나라별로 체감온도차가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원과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당연히 정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이 설마 가짜이진 않겠지?’라고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나라들은 사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떠나 이 가짜 약들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1. 선진국의 짝퉁의약품

싱가포르하면 누구나 선진국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연평균 국민소득이 5만 5천 달러로 우리나라의 2배에 해당할 정도이니까요. 청렴도도 높고 관광환경도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008년 1~5월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150명의 환자들이 심각한 저혈당 증세를 보이면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4명은 결국 사망한 큰 사건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들 모두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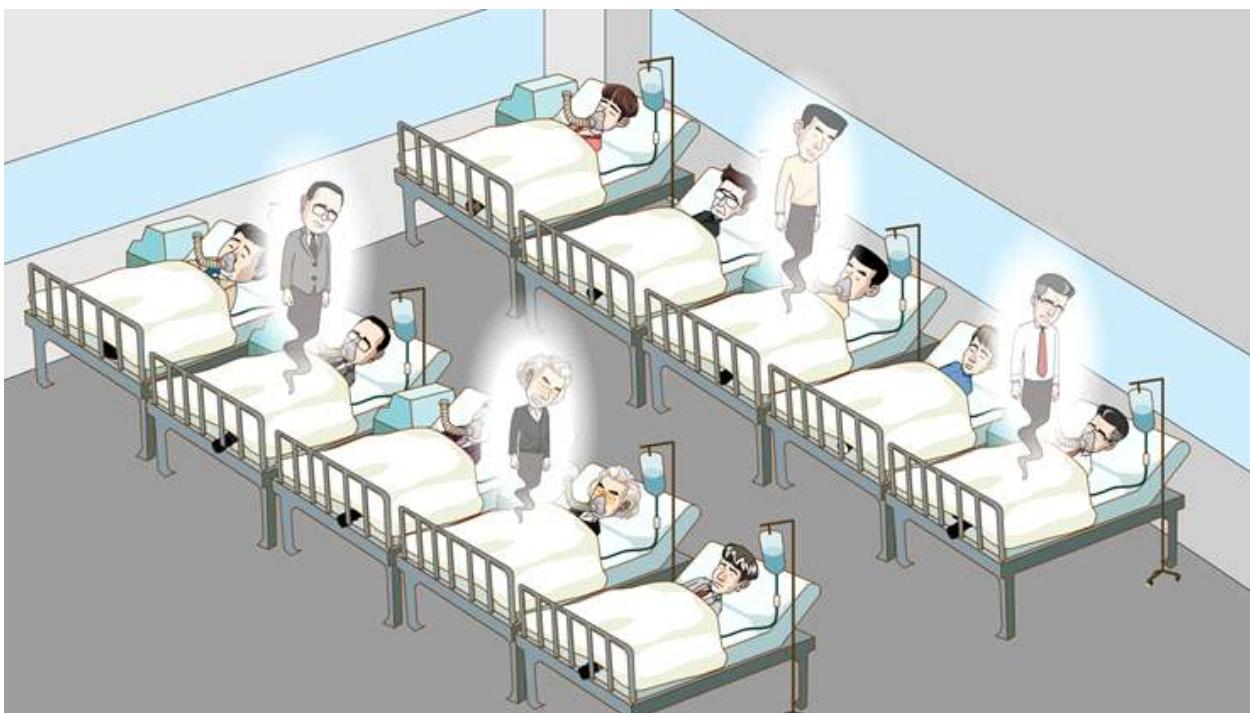


그림 8. 싱가포르의 저혈당증 집단 발병사건(출처:대한약사회)

이와 유사한 일이 거의 동일한 기간에 바로 옆 홍콩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여섯 명의 건강한 남성이 저혈당 증세로 입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들은 불법적으로 구입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그 약물에 실수로 혈당강하제가 섞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마 짹퉁의약품을 만드는 조직이 가짜 당뇨약도 만들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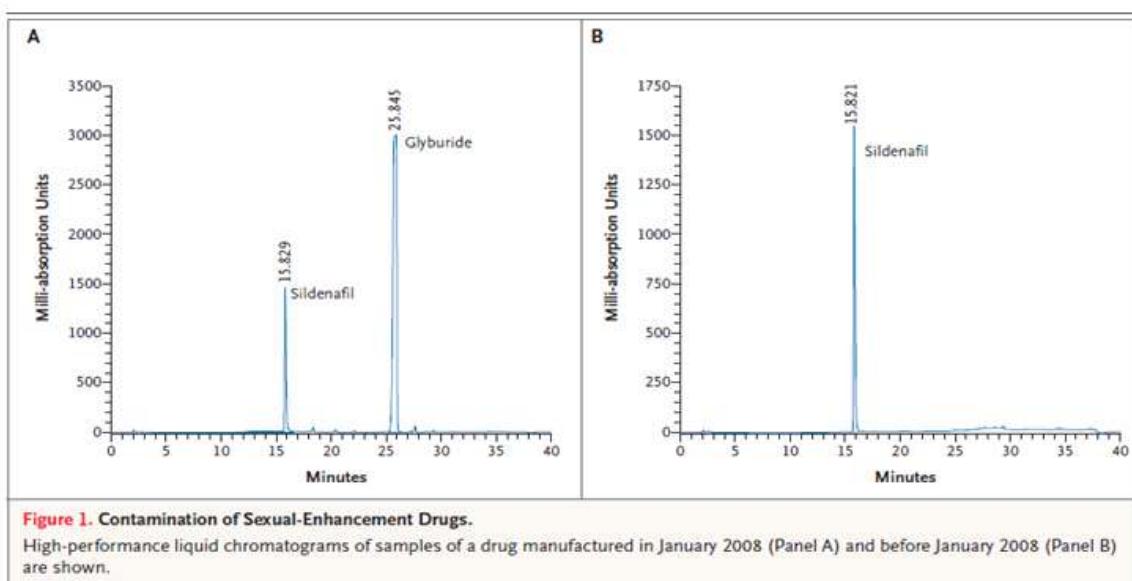


그림 10. 압수된 제품중에서 검출된 혈당강하제 성분(Glyburide)(출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처럼 선진국에서도 짝퉁의약품으로 인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유럽공동체에서는 최근 5년간 위조의약품의 판매가 400%나 증가하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는 바람에 모든 회원국에 그 정보를 알리는 비상경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고, 원래 명품 약제사리와 의류의 짝퉁 제조기술이 발달한 프랑스에서도 그 짝퉁 열풍이 의약품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마약도 짝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물류의 허브역할을 해왔던 홍콩도 예외는 아닙니다. 의외로 홍콩의 의약품 제조 환경은 빈약한데다 위의 사례처럼 홍콩 내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수입의약품의 규모가 급속도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미국의 경우도 얘기했지만, 선진국은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덩달아 짝퉁의약품의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2. 개발도상국의 짝퉁의약품

선진국의 짝퉁의약품 문제가 틈새시장의 문제라면,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유통되는 짝퉁의약품은 주로 삶의 질과 관련되거나 성인병 관련 의약품이 많습니다. 즉, 성기능 개선제나 고지혈증 치료제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개발도상국은 의약품의 수요가 선진국과 다릅니다. 즉, 경제가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생명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고사하고,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같은 의약품의 수요가 높게 마련인데, 이런 의약품도 이미 짝퉁의약품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위조의약품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나라중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인구 1억 4천만명의 나이지리아 의약품 시장은 연간 3억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의약품의 40~50%가 가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더 심각합니다. 전체의 85%가 가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격이 됩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면 다국적 제약회사의 진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시간 내에 짝퉁의약품이 만들어져 훨씬 더 싼값에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짝퉁의약품은 인도와 중국으로까지 유입되어 ‘다국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역시 그 나라 국민들입니다. 악화 될 대로 악화된 의료 환경 탓에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2달러 이하로, 낙후된 의료수준이 좋아질 기미조차 없습니다.

표 I. 나이지리아의 주요 의료환경 지표(from BMI.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09)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병원 수	1,171	1,172	1,172	1,174	1,174	1,174
인구 천명 당 병원 침상 수	1.5	1.5	1.5	1.5	1.4	1.4
인구 천명 당 의사 수	0.26	0.26	0.252	0.25	0.24	0.24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의 동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케냐에서 거래되는 전체 의약품의 약 30%가 가짜로 추정되며, 관세청 직원이 가짜 항생제를 권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 나라들에 게서 어느새 짝퉁의약품은 기본 경제구조의 하나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 짝퉁의약품의 피해와 대책

### 1. 짝퉁의약품은 어떤 피해를 주는가?

짝퉁의약품을 몰아내기가 어려워지면, 건강뿐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의약품의 성분이 들어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활성물질을 넣지 않아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파악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짝퉁약에 해로운 물질이 있어도 그것이 축적되어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기 전까지 인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치료효과가 없다면, 질병은 계속 진행되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진전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항생제나 항말라리아제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내성을 창궐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조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해 새로운 부작용이 출현하거나 질병이 진전되면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도 낭비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짝퉁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범람한다면,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부담은 다른 모두가 나누어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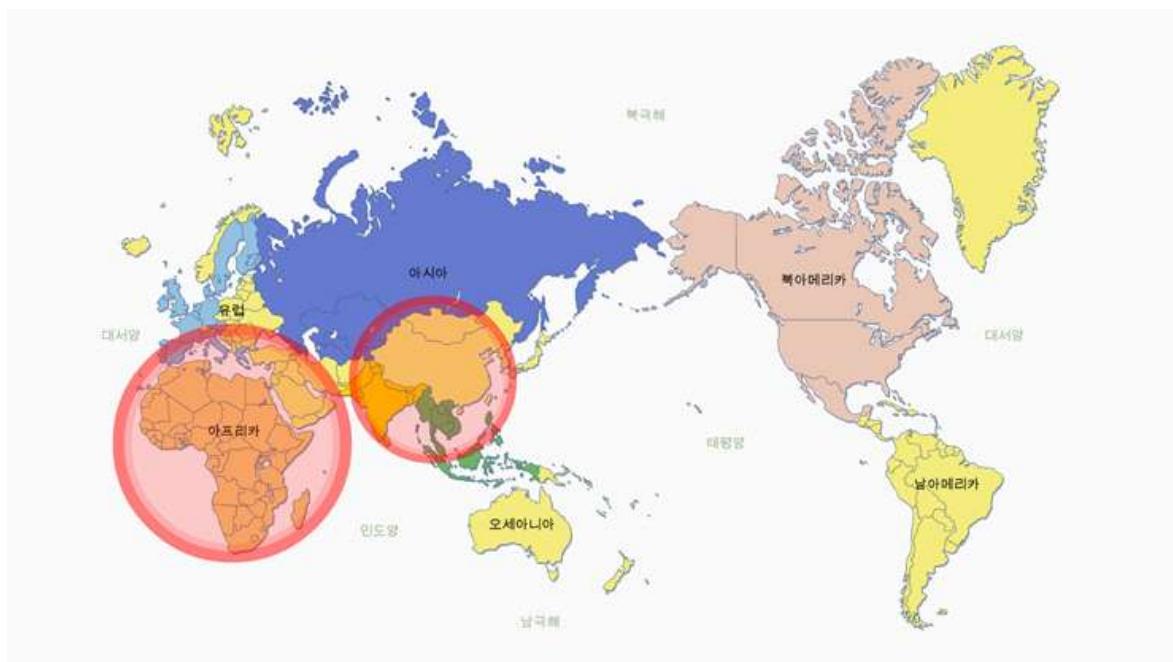


그림 15. 말라리아 출몰지역(출처:대한약사회)

## 2. 대책은 무엇인가?

짝퉁의약품이 우리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은 결국 강력한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미국 내 온라인 약국의 97%가 불법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모바일환경이 향상되면서 단속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형태로 짝퉁의약품은 스며들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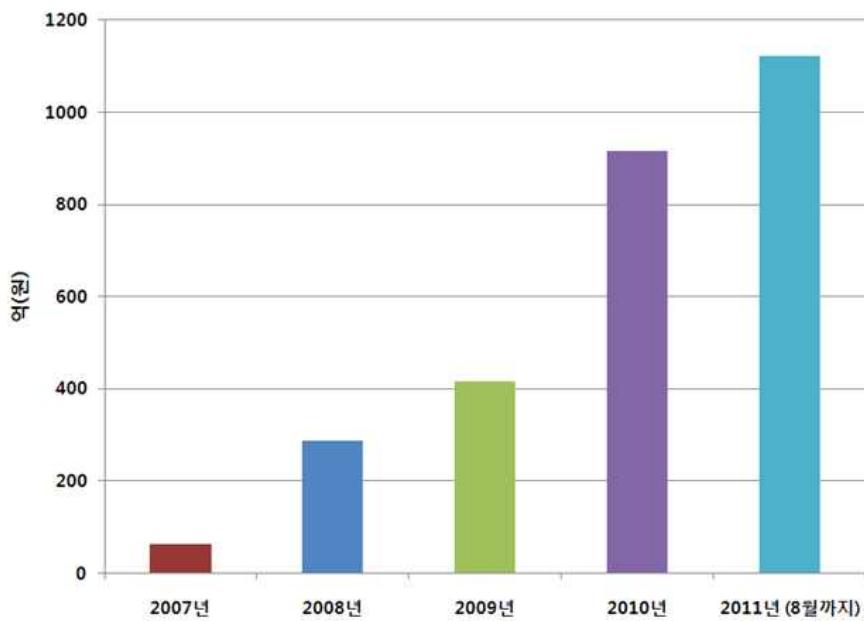


그림 18. 국내 위조의약품의 증가추세(출처:대한약사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일까요? 짝퉁의약품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달콤한 사실만 늘어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도 피임약과 낙태약,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진국이 예처럼, 한 번 짝퉁의약품 시장이 자리 잡으면 결국 의약품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곳에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진료와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이라는 경로를 지키는 것이지요. 한두 명이 이 당연한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짝퉁의약품이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그림 19. 국내 위조의약품의 주요 유통경로(출처:대한약사회)